

## 私財 5억원 出捐 獎學財團 設立

編輯委員會

대한한약협회 회원인 충북 괴산면 연만희 원장(평화당한약방)이 최근 후학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재 5억원을 출연, 장학재단을 설립해 화제가 되고 있다

연원장(49)은 83년 한약업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고향에 돌아와 한약방을 개업 후 지금까지 모은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뜻에서 '道谷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만희원장(충북 괴산 평화당)이 최근 사재 5억원을 출연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1차로 박사 석사 학사과정 7명의 학생에게 2천7백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2월 10일 증평파크텔 2층 연회장에서 도곡장학재단 설립 기념식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홍명수, 최길자, 권오창, 여옥준, 여옥순, 연광흠, 임미숙, 함돈수 등 박사 석사·학사 과정의 7명에게 연간 5백만~3백만원씩 각각 장학금을 지급키로 하고 1차로 2천7백만원을 지급했다

이 장학재단에는 권오승(서울대법대 교수), 김건일(형석고 교사), 김기현(전북사범대 교수), 박영희(평화식품 회장), 박원철(변호사), 이종민(전북인문대 교수)씨가 이사로, 김형수 코트라충북무역회장이 감사로 참여하고 있다

연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단은 인문 사회과학 분야에서 학문에 열의를 갖고 있는 우수한 대학(원)생들을 매년 선발해 이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며 “특히 우리 전통의 사상과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

들을 발굴 육성해 그들이 학문의 발전은 물론, 정신문화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후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아시아 제국과의 학술 및 문화 교류에도 관심을 가질 계획이며, 재단은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아시아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그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나라들과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의 교류증진을 위해서도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우리 민족의 지상과계제인 통일을 위해 재단이 기여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모색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